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박 인 기*

〈차 례〉

1.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범주
 - 1) 문식성 개념의 확장과 전이
 - 2)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발생 배경
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 1) 재개념화의 개념
 - 2) 문화적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코드 만들기
 - 3)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 간의 상호성
3. 재개념화의 실천
 - 1) 재개념화의 현실적 과제
 - 2) 남는 문제들

1.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범주

1) 문식성 개념의 확장과 전이

‘문식성(文識性; literacy)’은 말 그대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다. 이는 언어 교육의 기본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 ‘문식성’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용된다. 문식성은

* 인천교육대학교

오히려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넓게 띠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제 문식성의 원래 의미는 온갖 파생적 의미에 밀려서 원형의 모습으로나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문식성의 원형적 의미 가운데 유효한 자질로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이 '기본의 능력'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문식성이 어떤 분야로 파생되어 나가든지 문식성이란 말 속에는 '그 분야의 기본 능력'이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식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식성을 지식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단순히 문맹(文盲)/문해(文解)의 이원 구조의 관계 속에서 문식성을 이해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물음들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들은 어찌보면 문식성의 개념 확충과 의미 전이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애초 지식 개념에 가까웠던 문식성을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보고자 하는 성향은 소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식성의 개념 범주가 꾸준히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문맹(文盲)/문해(文解)의 이원 구조의 관계를 벗어나서 문식성을 보고자 하는 경향은 '문식성' 자체의 의미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식성에 대한 초기의 정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 문식성은 읽기에서 글자를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이는 읽기에서 가시적이고 청각적인 인식 기능과 문자의 음성의 인식을 강조한다. 이것이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단어의 지각과 해독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즉, 기초 기능 수준에서 언어를 해독하고 이해하여, 전체적인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는 개인 문맹의 구체적 문자 습득을 행동주의적 방식으로 구체화한 정의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인지주의 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문식성은 정보와 언어 처리 기능의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행위, 기능, 인지적·초인지적 전략 등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의 스키마를 동원한 의미 구성 능력을 강조하였고,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였다. 또한 쓰기를 독자와

의 관계 맥락에 초점을 두는 수사학적·사회적 발달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해와 표현이 의미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식성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 사용에서 표면적인 문자보다는 스키마와 같은 인지적인 지식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문식성의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읽'의 문제로 귀결시켰다. 따라서 문식성은 '인지적 기능'이나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문식성이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일종의 개념 전이에 해당한다. 후기 산업 사회에 이르러 사회적 작용과 경제적 생산력의 한 요소로써 문식성이 이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기능론의 관점에서 문식성의 역할이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이 그 예이다. 문식성이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기능론의 관점에서 문식성은 단순한 읽기 쓰기 기능이 아니라, 특정의 사회적 맥락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문자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일찍이 1960년대에 문식성을 '직업적, 시민적, 공동체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문자를 다루는 복잡한 기능 세트'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문자 이해를 넘어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이고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기능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식성은 비맥락화된 고립된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맥락의 범주 내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컴퓨터 문식성(computer literacy)', '기능 문식성(functional literacy)', '문화 문식성(cultural literacy)', '성인 문식성(adult literacy)'과 같은 용어들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용어들이다. 정보화 사회의 환경에서 기본적 정보 소통의 중심축에 놓이는 컴퓨터와 관련된 문식성은 더욱 중시된다. 이를 대량으로 소통시키는 미디어들에 대한 문식성 또한 사회적 문식성의 확장 유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의 문식성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Edwards, 1997).

이렇게 보면 문식성 또한 정신적·기술적 패러다임에 상응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식성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 역사적 현상, 또는 문화 현상으로 보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사회적 현실로서 문식성을 상정하고, 그것이 습득되는 과정을 사회 집단 또는 공동체 맥락과 결부지어 해석한다. 그런가하면 그 사회의 지배적 담화 형식과 관련짓거나 이념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문식성의 습득을 사회적 실체로서 인식하였다(Luke, 1997:143).

와그너는 문식성은 학교 중심 가치와 실제를 넘어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Bloome, 1987:37). 이러한 관점에서는 글을 읽고 쓰는 행위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행위로 파악한다. 즉, 문식성은 단순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구조에 대한 파악 능력으로 간주된다. 최근 영어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문식성도 '텍스트 수용 및 생산 능력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와 문학이 갖는 사회적 힘을 인식함을 뜻한다. 이는 곧 문화 비판론의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단편적인 언어 기능(skill)으로서의 문식성 개념을 해체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박인기 외, 2001:15~17).

2)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발생 배경

문식성이 '그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읽'(노명완, 1999)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각 분야마다 문식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로 유추하면 '문화적 문식성'은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읽'이라 할 수 있다. 단순화를 요하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정리가 될 수 있으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의 발생적 배경과 그 개념역을 정밀히 살피고, 그 작용을 좀더 정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문화적 문식성이 생성·변화된 모습을 보기로 한다.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은 단순히 말하면 개인이 사회·문화

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식은 ㉠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 된다.(Purves 외, 1994)

문화적 문식성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다분히 고전적 관점의 문화 개념이 주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문화의 개념이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전통과 문화가 동일 레벨에서 교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입장의 문화적 문식성은 전통적 가치를 지닌 문화 텍스트들이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나 문화는 수평적 범주에서 작용하는 면을 강하게 가진다. 즉 일상의 현재적 소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언어와 생활의 양식을 공유하게 하는 과정과 현상이 있다면 이는 수평적 범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 문화를 보는 이론적 관점 가운데 문화 해석학이나, 문화 기호론 또는 현상학적 인류학 등의 관점은 문화의 수평적 범주를 드러나게 하는 접근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문식성은 이들 문화 이론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수직적 범주와는 다른, 일상의 가치 합리성, 기호적 상징에 대한 반응,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태도와 양식 등 수평적 범주를 상정할 수 있고, 그것은 그 나름의 교육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문화 해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 분석은 법칙성을 추구하는 실험 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 과학이라는 관점에 선다. 텍스트

1) 문화를 보는 이론적 관점 가운데 이론바 기능주의 인류학이나 문화 양식론 등의 관점에서 문화적 문식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주의 인류학은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각 요소는 전체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그것을 '기능'이라 불렀다. 이들 문화 이론에 따르면 현존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조사가 중시된다. 문화 양식론은 문화의 무한한 다양성을 주장하며 인류 문화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선다. 문화 양식을 어떤 원형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해당 문화의 가치 질서를 설명한다. 과학적 방법론 일반도에서 공감적 통찰력에 의존하기도 한다.

해석의 차원에서 문화를 설명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해석하는 작업을 중시한다. 또 문화 기호론은 인간 문화 활동의 전영역을 언어학적(기호학적) 모델에 의하여 기호적 텍스트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예컨대 축제 의상의 기능적·역사적 기호 작용을 해명해 본다든지, 요술사의 손 및 무용가의 발에 나타난 잠재적 문화 시스템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²⁾ 이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강한 친연성을 지닌다.

현상학적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의 수평적 범주는 더욱 확장된다. 일상의 수평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문화적 의미로 포착하려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인류학은 현실이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구성 과정을 일상 생활인들의 의미 부여와 해석 속에서 찾으려는 방법을 구사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해석 행위(일상의 대화와 그 이해)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다.(綾部恒雄, 1984)

이처럼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은 고정형이라기보다는 유동적 진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분히 역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문식성'의 개념을 연원으로 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파생과 전이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문화 현상이 사회 현상의 일종으로 그 자신 소통의 역동성과 변화의 맥락을 항상 지니는 것이라는 점을 거쳐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 문식성 그 자신 부단히 변화되어 간다.

문화적 문식성이 교육과 관련해서 생성된 토양으로 미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적 문식성이 원래는 다인종을 토대로 하는 다문화 사회의 배경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20세기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무엇이 미국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그 문화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학교가 사

2) 일상 공간에서의 삶의 방식을 문화의 구조로 보려는 이러한 문화 이론들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강한 친연성을 지닌다.

용하는 텍스트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적 문식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화적 문식성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문화의 내용을 교육의 텍스트로 구체화 하는 구체적 아이디어와 내용 그 자체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이 미국 교육계에 있어 왔다.³⁾

보수적 교육개혁론자들은(Diane Ravitch, Alan Bloom, William Bennett 등) 문화를 정의하고, 그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문식성의 이슈를 제기하려 했다.(E. D. Hirsh,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1987.)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교육의 현실 문제들, 예컨대 역사, 지리, 공민 등의 각종 표준검사상의 성적 저하에 대응하고, 전통적 커리큘럼을 훼손해 왔던 '카페테리아 스타일'의 파편화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응하려 하였다. 또 기업의 지도자들은 말하기와 쓰기에서 빈약한 소통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입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업적 관심을 제고시키려 했다.

그들은 이러한 실패를 60~70년대의 진보적 교육개혁론자들 또는 자유주의적 관용주의자들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기본 리터러시 기능을 가르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지식의 본질 내용을 중시하고, 성취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등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의 결핍상을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허쉬는 교육받은(문자를 아는) 미국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잠정적 용어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교육 이론이 토대가 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의 비판론자들에게 그의 문화적 문식성은 주로 백인 남성 우위의 미국 엘리트 사회를 떠받치는 코드 워드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문화적 문식성을 단순한 정보나 명칭을 기억하게 하는데 기반을 두지 말고, 어떤 문화현상과 관련해서, 태도, 신념, 철학 등에 관한 깊은 총위의 지식, 심지어는 그 문화 내부의 모순이나 파라독

3) 이하 '문화적 문식성'의 발생과 관련한 미국 사회의 토양에 대한 내용은 Purves (1994)가 편한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vol 1)의 cultural literacy 편을 참조하였음.

스에 관한 심층적 지식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비판적 성향이 생겨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문화적 문식성은 용어는 새롭지만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초중등 교육에서는 일찍이 사회 속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 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통 교육의 이원적 목표는 언어 능력(일반적 리터러시)과 도덕성 함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식성 교육의 토양 아래, 19세기 후반 이후, 이민의 급증으로 미국 사회는 '미국화'의 과정을 교육이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식 영어와 미국식 방식(문화)를 배우게 하는 일이 교육의 주요 역할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문화적 문식성은 교육의 장에서 중요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화적 문식성은 미국 교육의 엘리트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기업이 교육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적 생산성을 요구하게 되고, 대학의 학문 사회 또한 수월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요구와 기업의 요구로 인해 고등학교는 능력별 학급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아카데미 코스에서는 대학진학용으로 중요 텍스트들을 사용하였고, 대학에서도 소규모 엘리트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텍스트들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텍스트들은 미국사회의 문화적 엘리트들, 또는 경영자 통치자들의 세계로 입문하는 열쇠와도 같았다.

물론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 1920년대 E.L. Thorndike는 '학습의 전이'에 관심을 가졌다. 제재나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사고력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텍스트 중심의 사고력 교육은 고전적 연구의 퇴조를 보여주는 한 요인이었다. 이민의 증가와 도시 사회의 확장으로 사회 문제가 생기고 학교 연구의 변화가 생겨남에 따라 기능 습득이 커리큘럼 설계에서 초점이 되었다. 1960년대 진보적 교육 운동은 고등학교 대학교육 커리큘럼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교육 개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19세기 이래 교육을 지배해 온 소위 '교육의 표준'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개방적 수용적 정책으로 대학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등 교육에서 허술하게 배운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문식성의 보충 훈련이 필요하였다. 여성, 흑인, 히스패닉, 소수 민족 가운데 생겨난 어떤 의식이 학생들의 투쟁성을 증가시켰다. 정전을 가르치는 것이 전통적 백인 남자 중심의 사회에 의한 소수 집단의 지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학들은 다문화적 문헌들의 연구를 포함하는 포섭적(inclusionary) 커리큘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허쉬는 한 문화(이름대면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대 미국의 문화)속에서 어떤 문식성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를 중시함으로써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제기하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 학교가 다양하게 많아지고, 다문화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적,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문식성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문화적 문식성은 교육이 만나게 되는 일종의 현실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적 문식성은 기존의 읽기 또는 기본적 문식성 기능(literacy skill)을 포함하는 복합적 문식성이며,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식성 기능(literacy skill)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또는 뉴미디어에 의해서 커뮤니티화 되는 현대인들)에 의해 공유되는 '텍스트 해석의 구조'를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미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문식성은 주로 제2언어의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화되었다. 제2언어 교육이 미국 사회 내의 마이너리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문식성의 문제'는 미국 교육의 정치적 성격과 언어와 문식성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짚어 보게 한다. 그것은 사회에 의해서 주변화 되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능력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할 때, 대단히 절실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데, 이는 동시에 교육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문화적 토양은 미국처럼 원래 다인종 사회가 아닌 곳에서도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정보화 환경, 직업

의 분화, 경제 환경의 세계화 등으로 한 세대 전에 비해서 다문화 사회적 속성을 띠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적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계화의 보편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보편적 양상에 기여한 것은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이다. 그러니까 달리 들여다보면, 문화적 문식성은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에서 문식성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응되고 하겠다.

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1) 재개념화의 개념

재개념화란 기존의 어떤 개념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뜻으로 보면 일 단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 이론의 용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념화의 개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에서 논하는 이론적 시도도 일종의 국어과 교육과정 이론 차원으로 귀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⁴⁾ '재개념화'가 교육과정 용어로 자리잡은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49년 이래 이른바 교육과정 형식의 항존적 모델로 자리잡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은과 그 사고 체계는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일러의 사고 체계에 의존해 온 교육과정 탐구를 다원화하려는 노력들이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전통적 접근과는 달리 교육과정을 보다 철학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보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을 묶어서 '재개념화'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4) 그런 의미에서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논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지적 성찰을 통해서 국어과 교육과정 탐구가 독자성 있는 이론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학문 제도상으로는 국어교육학이 내용학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학문 철학을 마련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재개념화론자(reconceptualizist)들은 기존의 교육과정 탐구가 기능적인 성향으로만 기울어 있고, 공학적 처방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탐구 패러다임 자체가 무이론성(無理論性)과 탈역사성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였다.(허숙 외, 1997)

교육과정 탐구 분야에서 일어난 재개념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절리되는데(Pinar, 1975), 이는 우리가 문식성 논의를 비롯하여 어떤 문제를 국어교육과정의 차원에서 재개념화 하기 위하여 논의할 때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시사를 준다.

종래의 기술공학적이고 행동주의적인 교육과정 연구 모형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통하여 전통적 관점이 가지는 탈역사적 성격, 가치중립성의 허구성 등을 지적하거나, 교육과정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재생산이론, 잠재적 교육과정, 헤게모니 이론 등을 교육과정이 이론으로 착근시키기도 하였다. 또 다른 재개념화 양상으로는 이론과 실제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그 관련성을 새롭게 모색하려고 하였다. 재개념론자들은 전통적 교육과정 탐구가 이론이 없다고 비판하고, 이른바 개념·경험론자들은 공허한 이상적 이론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미학적 비판을 시도하여 교수와 학습의 과정이 단순히 목표와 방법을 연결하는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의 형성을 해 나가는 실존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재개념화는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탐구 영역이 새로운 해석의 코드를 새로운 맥락에서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재개념화의 결과로 탐구 실천 영역이 질적으로 확충되고,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층성을 바람직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재개념화 한다는 것은 문화 현상을 교육 현상의 맥락으로 보는 발상을 요한다. 아울러 문화의 내용과 현상을 언어적 소통의 맥락에서 의미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문화를 내용 지식 또는 유산, 지적 형식 등의 수준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개념을 해체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식성 자체가 지니고 있는 맥락이 국어교육을 향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통적 문식성에 입각해 있는 국어교육의 한 국면을 새롭게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국에는 재개념화를 거치는 동안에 '국어교육의 철학'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2) 문화적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코드 만들기

문화적 문식성은 문식성 논의의 변천으로 보자면 비교적 최신의 이슈쯤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 쪽에서 재개념화 하기 위해서는 그 간의 문식성 개념 논의를 총화하는 지점 어디쯤서 문화적 문식성을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정의되어 온 문식성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문식성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식성은 언어 지식 자체라기보다는 언어적 소통 능력의 개념이라는 점, 둘째, 문식성은 한 개인의 지적 수준 및 발달과 관련이 있는 발달 현상이라는 점, 셋째, 문식성은 언어 경험에 개입하는 각자가 지닌 능력이 되, 언어 이해와 표현에 관련된 지식과 전략과 기능을 포괄하며, 특정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는 점, 넷째, 언어 현상의 변화에 따라 문식성이 변하고 문식성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문식성의 다양한 정의에서 보듯이, 문식성이란 언어와 관련지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개념이긴 하지만, 문식성 용어에 암시된 '능력'에 대한 일치된 개념은 없다. 다만 협의의 개념으로는 '문맹과 비문맹'의 의미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떤 것을 읽고 쓰는 능력'의 의미로,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문화적 적응 능력'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마디로 그 능력을 정의하거나 단순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문식성을 문화적인 현상과 관련지으면, 각각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시대적 상황 내에서만이 문식성은 이해되고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로 일컫는 이 시대의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문식성의 타

당한 정의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우, 문맹이나 비문맹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언어 및 문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고립된 기능으로서의 읽기와 쓰기 역시 더 이상 이 시대의 문식성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문식성은 '지금의 담화공동체가 가치롭게 여기는 이해와 표현 능력'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박인기 외, 2001)

언어가 도구이기는 하되, 그것은 수단이자 인식 그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양상이라고 본다면 언어 능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인식과 가치의 문제이다(김대행, 1997:24).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천에 어떻게 대응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의 역동성이 두드러진 현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문식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그러한 필요에 맞물려 있다. 문화적 문식성이 현대인의 소통적 삶의 이상에 관련되는 것인 한, 국어교육의 일각에 또한 맞물려 있다.

이제 이를 하나의 그물망으로 상징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 문식성의 여러 내용 요소 가운데 언어문화의 영역이 국어교육의 범주 속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국어과의 교과 정체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화 문식성의 어떤 내용은 사회과학과 음악과 미술과 등에 속할 수 있다. 문화적 문식성으로 인해 국어 교과의 규범적 경계역이 유연해질 수는 있으나 무한 확장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언어문화 또는 텍스트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국어교과의 내용 범주 재개념화는 꾸준히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코드와 맞물리는 국면을 <문화의 존재 양태>, <문화 인식의 효과>, 그리고 <문식성의 활용 차원> 등으로 범주화 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문화의 존재 양태-문식성 내용 범주>

문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얹이 문화적 문식성의 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수용하고자 했을 때, 그 문화의 존재 양태가 통시적 전통 문화의 공간인지, 공시적 당대 문화의 공간인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 문식성에 대한 효과적인 내용 변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어교육의 기획·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문화의 통시적 양태 : 언어문화 중에서 수직적 시간대에 걸쳐 집적되고 전통화 되어 전해지는 문화 내용들을 국어교육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문화의 규범성, 문화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교육적으로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전적 텍스트를 통한 지적 도야가 중시되고, '지식 → 태도'의 과정으로 패턴화 되는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룬다

② 문화의 공시적 양태 : 언어문화 가운데 학습자의 당대적(현대적) 삶에 현상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문화 내용들을 국어교육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앞의 ①항과는 대비적으로 공시적인 문화로서, 현재 펼쳐져 있는 문화 내용들이 주가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방식에 대한 적용과 성찰을 실천의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중시하게 되며, '현상의 경험 → 실천적 성찰 → 가치 실천'의 과정으로 교육 내용이 모형화 되는 성향을 보인다.

〈문화 인지의 효과·문식성의 작용 효과〉

문화적 문식성이란 문화 인지의 효과를 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문화적 문식성을 제반 문화적 맥락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일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전통문화는 공동체 내의 상징과 인식에 알게 모르게 관여함으로써 공동체 성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숨어 있는 코드로써 작용한다. 또한 기술고도화 사회에서 문화는 기술과 접변하여 문화의 여러 기반과 형식들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소통에서 소외된다. 이런 문화 인지는 기능적 차원에서만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초인지하는 단계에 이르면 비판적 안목으로 소통에 참

여할 수 있게 된다.

① 기능적 소통 효과 : 문화 인지를 함으로써 일상의 의사소통 기능이 발달시키고, 현대화, 기술화된 의사소통 환경에 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국어사용기능신장을 목표로 하는 국어교육이 마땅히 주목해야 할 국면이다. 공시대 속의 문화 내용들을 문화적 문식성의 기능적 소통 능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통시대상의 문화 내용들도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의 질에 관여한다.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 재개념화의 구체적인 탐구 사례로 예컨대 고전에 대한 지식이 일상의 담화적 소통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비판적 소통 효과 : 기술 공학 시대의 문화적 문식성은 비판적 문식성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교육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 비판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주의적인 방향으로의 문화 변동은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인 구도를 영속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Taylor, 1992)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고착 심화되고, 상품과 기호, 상징들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계층과 생산하는 계층이 분리된 채 존재하는 한 문화와 도덕의 분리는 가속화 될 것이다. 상징체계의 관리자(또는 창출자)와 소비자가 격리된 삶을 제각기 구축하는 한 상징의 조작과 과소비, 물신 숭배의 문제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임흥빈, 1996:374) 일상적 소통 속에 진정성이 은폐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은 언어의 사용을 탈윤리적 기능성으로만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 제도 국어교육이 비판적 소통력에 관한 교육적 기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문화적 문식성을 재개념화 하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문식성의 활용 차원〉

문화적 문식성은 그 자체가 활용 능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

어교육적 재개념화를 시도하면서 '활용의 차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한다. 길러진 능력은 활용을 통하여 실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 문화적 문식성 속에 활용 능력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그 활용 능력을 다른 상위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결국 함양된 문화적 문식성은 국어사용능력신장을 강조하는 국어교육과 이념적이든 실용적이든 서로 부합되는 코드를 갖추어야 비로소 합리적으로 재개념화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지식 차원 활용 : 문화적 문식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문화 내용에 대한 지식, 또는 문화 작용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식이 국어교육의 내용과 어떤 생산적 상호성을 가질 수 있다면,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이 지식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문화적 문식성의 기본 요소인 지식 가운데 우선 언어 문화적 사실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국어교육 쪽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문식성이라는 개념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미 국어교육의 내용 속에 문화적 문식성의 기본 지식들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새롭게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대두되는 문화적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내용이 새로운 교육적 기획 하에 유기적으로 상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국면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② 전략 차원 활용 : 여기서는 문화 교육으로서 국어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이는 문화적 문식성이 개인의 언어사용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국어교육 자체의 전략을 기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문학을 통한 교육'의 가능성을 입론할 수 있다는 예를 보이기로 한다.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을 통한 교육'을 주창하는 데에는 삶의 교육이 바로 문화교육이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은 개체로 하여금 어떤 특정의 문화에 기술적으로 이념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기능(skill)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넓게 보면 일종의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유용하고 합당한 자리를 찾아 줄 수 있다.

문화는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의 쓰임도 다양하다. 그런데 문학은 그러한 다층위의 문화를 다면적으로 접하여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교과는 그 나름의 문화적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교과를 문화론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역사가 길지 않다. 교과와 문화를 연결짓는 고리로서 문학을 통한 교육의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문화 또는 문화교육은 문학을 소통시키는 매체의 작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문학은 다양한 의미 굴절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변용되고 향유된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던 것이다. 디지털 시대, 첨단 매체 시대의 한 특성이다.

모든 학습자(수용자)는 매체와 문화의 어느 지점에서 문학을 만난다. 그리고, 이렇듯 이미 경험한 문학을 고정된 양식 그대로 보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화적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다시 경험한다. 그러한 경험의 과정 속에서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재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을 매체가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매체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학을 통한 교육'은 문화적 문식성을 통해 그 이론을 재개념화하고, 문화적 문식성은 '문학을 통한 교육'을 만남으로써 국어교육적 구체성을 확보한다.

3)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 간의 상호성

이상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구도에 코드화 될 수 있도록,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를 <문화의 존재 양태>, <문화 인지의 효과>, <문식성의 활용 차원> 등 세 가지로 설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 특징 요소를 이항대립의 구도로 나누어 보았다.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 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특징 요소들 간에 상호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추상화 한 것이다. 이는 물론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 교육적으로 재개념화하는 과정을 나타내어 보이는 하나의 모델로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어교육적 재개념화를 위해서 문화적 문식성의 내용과 작용을 규범적으로 범주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존재 양태〉와 〈문화 인지의 효과〉 간의 상호성

	문화의 통시적 양태	문화의 공시적 양태
기능적 소통 효과	- 공동체의 전통 문화를 익히고 공동체 의식의 정체성에 친숙하여 언어적 소통에 참여함 - 타 언어 문화 이해에 필요한 지적 기반 인식	- 현재의 삶에 대한 문화적 기반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통에 실천함
비판적 소통 효과	- 시대적 정신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 이해력 증진 - 언어와 역사를 매개하는 코드로서 전통 문화의 심층 이해력 증진	- 현재의 삶에 대한 문화적 장치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통에 실천함

〈문화의 존재 양태〉와 〈문식성의 활용 차원〉 간의 상호성

	문화의 통시적 양태	문화의 공시적 양태
지식 차원 활용	- 국어교과 내용 도구성 개발 활용(언어 문화적 사실 정보들이 타교과 내용 도구적 지식으로 활용 가능)	- 문화의 작용에 관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활용(미디어 문식성과 배합)
전략 차원 활용	- 언어문화를 중핵으로 하는 커리큘럼의 가능성 모색	- 언어문화를 중핵으로 하는 커리큘럼의 가능성 모색

〈문화 인지의 효과〉와 〈문식성의 활용 차원〉 간의 상호성

	지식 차원 활용	전략 차원 활용
가능적 소통 효과	- 언어 사용의 절차적 지식 확장	- 전통적 텍스트 이외에 다양한 문화 텍스트 이해 전략 개발
비판적 소통 효과	- 문화 형식과 현실의 대응을 설명하는 언어 및 문학 이론	- 사회·문화 차원의 언어적 실천과 관련한 교육 내용 확충

문화적 문식성의 존재와 작용을 기능주의로 설정해 본다든지, 비판주의적 관점으로 설정해 보는 실천론적 입장에 섰을 때는 이러한 재개념화를 설정하는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와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 되는 과정은 이처럼 문화적 문식성의 특징 요소들을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포착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적 문식성의 하위 요소들이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할 때,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구체적 가능태를 통해서 점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실천적인 작업이고 긴 시간과 의도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재개념화의 지도를 그려 본다는 수준에서 기본 아이디어 수준만을 보인 것이다.

3. 재개념화의 실천

1) 재개념화의 현실적 과제

(1) 생성력 있는 국어교육 이론의 마련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 하는 것은 엄청난 이론적 정련을 요하는 것이다. 더 많은 학제적 접근과 그것의 온축이

국어교육의 이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해야 한다. 우선 문화적 문식성이라는 이 거대한 잡종의 이론적 피물을 국어교육이 재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문식성이 가지는 이론의 자장(磁場)보다 더 강력한 국어교육의 이론 자장이 있어야 한다. '문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이론의 울타리들은 그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다.⁵⁾

우리가 국어교육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국어교육의 존재론적 바탕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국어교육 방법론의 철학을 드러내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여잡고 있는 것은 대체로 국어교육의 목표와 조직과 방법과 평가의 실천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류이다. 말하자면 타일러의 공학적인 교육과정 관에 기술적 원리로 부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속성상 처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론이 될 수 없다. 기능 중심의 국어교육을 15년가량 해 오면서도 실용과 실제의 언어 철학적인 강조를 학문 이론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언어교육의 실

-
- 5) 문화를 보는 이론의 울타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①우선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기능주의 문화론, ②문화 양식을 어떤 원형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해당 문화의 가치 질서를 설명하되, 과학적 방법론 일반도에서 벗어나 공감적 통찰력에 의존하는 문화양식론, ③인지의 문화 차, 정신 병리와 문화의 관계, 사마니즘 등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의 변용, 문화 변동 및 이탈 행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심리 인류학, ④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생계 활동의 직접적인 기록 분석을 토대로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하여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생태학, ⑤문화는 상징 형식을 통해서 파악되는 의미의 패턴임을 알고 의미와 상징의 작용을 인간적 특징 내지는 문화 작용의 핵심으로 파악하려는 상징문화론, ⑥ 문화를 그 사회의 '지식의 체계'로 규정하고, 각 사회의 분류 체계를 점검해 보면서 각 사회(민족)가 지닌 과학 즉 '지식의 체계'를 발견하는 인지 문화학, ⑦ 문화 분석은 법칙성을 추구하는 실험 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 과학이라는 관점에 서서, 텍스트 해석의 차원에서 문화를 설명하고, 이해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중시하는 문화해석학, ⑧ 인간 문화 활동의 전영역을 언어학적(기호학적) 모델에 의하여 기호적 텍스트로 이해하려는 문화기호학, ⑨ 현실이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구성 과정을 일상 생활인들의 의미 부여와 해석 속에서 찾으려는 방법을 구사하는 현상학적 문화학 등이 이론적으로 은축되어 있다. 이런 이론 체계와 호응되는 국어교육의 이론 자장이 있을 때 재개념화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용주의 철학이 갖는 본질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논구하는 이론의 토대를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 재개념화의 동력은 국어교육의 이론다운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2) 진정한 소통과 문화 비판의 관계성에 대한 국어교육적 이해

소통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요인들이 학생들의 일상적 언어 경험 속에 침윤되어 있을 때, '순정한 국어교육'은 어떤 실천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문화적 문식성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잡종의 코드는 국어교육과 무관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다. 전통적 교과와 경계역에 국어교육이 그냥 머무르고 있는 동안 문화적 문식성과 관련된 비판적 실천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문화의 역동성은 유행이라는 현상을 다시 살펴보도록 강요한다. 오늘날의 유행은 부단히 변화하는 자본주의적 문화 정신의 역동적인 상태를 반영한다. 결국 문화의 상품화 과정은 문화와 유행의 차이를 상대화 한다. 유행을 추종하는 현재적 삶의 방식은 현대인들의 전도된 나르시시즘을 말해 주며, 인간을 자기 성찰의 가능성으로부터 차단한다. 기술적 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간들은 새롭고 인공적인 사물들에 의해서 포위된다. 이러한 세계의 어느 곳에 과연 역사나 자연, 진정한 예술의 체험이 들어 설 수 있겠는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수단과 도구들뿐이다. 소비 상품으로서의 문학이나 예술, 심리적 보상 행위에 그치는 종교적 의식, 언어의 기능화 등은 한결같이 문화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를 무색하게 만든다.(임흥빈, 1996:348)

사회·문화적 현상은 언어적 소통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명제를 국어교육의 책임 과제로 승인하는 곳에 문화적 문식성의 재개념화가 명실상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현재 좌표는 이것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 국어교과의 교과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이론망으로 재개념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재개념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3) 교육 일반과 국어교육의 상호성 강화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재개념화 하면서 우리는 국어교육이 교육 일반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니까 교과를 교육적 특수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교육학만이 교육의 일반적 원리를 독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도 그 내부에 교육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독자반응이론은 문학의 수용이론이고 이것을 토대로 '반응 중심 모형'이라는 읽기 교육의 한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형이 다른 교과의 장면으로도 유효하게 전이될 수 있는 보편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문화적 문식성이야말로 그런 속성이 두드러진다. 문화적 문식성의 기제 내부에 교과들 간의 상호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과들 간의 상호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국어과가 그 중핵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학문 경계역상 국어과에 속해 있는 '문학'에 잠재되어 있는 교육적 원동력을 살펴보면 드러난다. 이 경우는 물론 '문학' 교과가 아닌 문학의 보편적 교육력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을 통한 교육'이라고 부른다.⁶⁾

현대 사회에서 문학은 매체와 더불어서 문화 교육의 기능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 문화란 것이 삶 일반에 대응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통한 교육'에 거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의 문학은 매체, 문화와 상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소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는 시사는 매우 크다. 교과 외적 교육, 학교 바깥의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6)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문학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물론 일반 교육도 그런 '문학을 통한 접근법'을 의도적으로 주목하지는 않는다. 재개념화의 철학이 요청되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한 교육’은 일상의 매체 경험이나 일상의 생활 경험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인성교육이 될 수도 있고, 환경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경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애국심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도덕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예술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⁷⁾ 현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는 이처럼 매체를 가르치는 일과 문학을 가르치는 일과 언어를 가르치는 일과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 중첩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문학을 통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자체를 교육의 공간으로 보는 관점에 있을 때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러한 입론을 승인한다면 ‘문학을 통한 교육’이 지니는 보편적 교육력 또는 교육 일반에 대한 기여를 새로운 차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문식성을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할 때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한다. 이는 앞으로 국어교육에 대한 도전임에 틀림없지만, 국어교육의 기회인 것 또한 틀림없는 것 같다.

2) 남는 문제들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재개념화 하면서, 그것의 긍정적 가능성을 주로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 글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재개념화의 철학과 상황과 요구가 어디에서 생성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재개념화의 긍정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어교육(학)의 내적 질서

7) 일상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영향들을 이렇듯 이름을 붙여서 교육의 경계를 명명하지는 발상 자체가 ‘문학을 통한 교육’의 원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문화란 공유된 의미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총화로서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자나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을 무슨무슨 교육이라고 명명하여 재단하기는 무리이다. 그러나 이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때는 혹은 이론적 체계를 구명할 때는 무언가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와 체계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오류와 착오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첫째, 국어교육 이론의 층위에서는 국어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가치론적 이론의 꾸준한 정립이 중요하다. 종래는 개발의 실체나 방법에 관한 기술적 원리가 주종을 이루었던 점에서 이론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론 천착의 방식으로서는 학제적 이론망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는 문화 문식성의 내용이 일종의 잡종성을 띠고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이 응용 학문으로서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회로가 복잡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어교육 개발의 층위에서는 국어교육의 항존적 내용에 대한 회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교육의 모든 개발 과정에서 언어(문학) 현상의 문화론적 투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국어과 교육과정 이론'의 정립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어교육 수요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셋째, 국어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어 형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 외적 문화 경험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또는 학교 내·외 적문화 경험 간의 상호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 및 문화 현상'으로서의 교재의 모형이 궁구되어야 한다. 언어의 문화적 작용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교과 상호성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중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문학을 통한 교육'의 예)

넷째, 국어교육 방법의 층위에서 보면, <활동+반성적 내면화>의 활동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상 언어문화의 외피쯤에 해당하는 미디어가 구사하는 각종 언어의 포맷들이 국어교육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공시대 대중문화의 언어 사용(향유) 방식을 수업이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조건들을 재음미해 보면, 문화적 문식성의 재개념화는 단순히 기술적 조작의 차원에서 임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소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는 안목으로, 그리고 인간과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전망력을 갖추어서 튼실한 이론력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1996), 『문화 개념의 철학적 배경』, 『문화철학』, 한국철학회 편, 철학과현실사.
- 김대행(1997),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구조』, 『선청어문』 25집.
- (1997), 『영국의 문학교육-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제4집,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 노명완·이차숙(1999), 『문식성의 개념, 발달, 사회적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인기·신현재·이주섭(2001), 『미디어 문식성을 반영한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박인기(2001),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제2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2), 『문학을 통한 교육: 방법론적 원리 모색』,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 연구발표대회 발제논문, 경인초등국어교육학회.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택광(2002), 『한국문화의 음란한 판타지』, 도서출판 이후
- 임홍빈(1996), 『기술공학 시대의 문화』, 『문화철학』, 한국철학회 편, 철학과현실사.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 허 숙·유혜령 편(1997), 『교육현상의 재개념화』, 교육과학사.
- 한국철학회 편(1996), 『문화철학』, 철학과현실사
- Bloom, D.,(1987), *Literacy and scholling*. University of Michigan.
- Edwards, V. & Corson, D., 1997, Functional literacy,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ume 2.

- Hirsh, E. D.,(1987),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 Luke, A.,(1997),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ume 2, pp.143~151.
- Purves, Alan C., Papa, Linda., Jordan, Sarah., (eds.)(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vol 1), NCTE.
- Pinar, W. F.(eds.)(1975), *Curriculum Theorizing : The Reconceptualists*, Berkeley : McCutchan.
- (eds.)(1988),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Scottsdale : Gorsuch Scarisbrick.
- Tylor, C.,(1992), *The Ethics of Authentic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Wagner, D. A.(1994), Literacy, *Encyclopedia of English and Language Art*, NCTE.
- 레이먼드 윌리엄즈, 설준규/송승철 역(1984), 문화사회학
- 綾部恒雄,(1984), 이종원 역(1987), 『文化人類學의 열다섯 이론』, 인간사랑.

〈초록〉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박 인 기

문식성의 개념은 의사소통 환경과 양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도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문화적 문식성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적 문식성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 지식(기능)으로 널리 인식된다.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문식성은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닌 텍스트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강조한다. 현상학적 관점(문화를 수평적으로 보는 범주)에서 보면 일상의 가치 합리성, 기호적 상징성에 대한 반응 능력,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이 간주관적(inter subjectivity)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토대로 일상적인 해석 행위에 서 문화적 문식성의 본질을 찾으려 한다.

우리는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에서 문식성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를 부단히 진행형으로 물어야 한다. 문화적 문식성은 기존의 문식성(literacy skill)을 포함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문식성이며 오늘날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텍스트의 해석 구조'를 아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재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현상을 교육 현상의 맥락으로 보는 관점이 요구된다. 그리고 문화의 내용과 현상을 언어적 소통의 맥락에서 의미화 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적 문식성에 기반을 둔 국어교육의 한 국면을 새롭게 해체하는 효과를 불러 오게 된다.

문화적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호응을 위해서는, 문화적 문식성은 현대인의 소통적 삶과 연관이 되고, 소통과 연관이 되는 한 그것은 국

어교육의 내용과 관련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문화적 문식성이 국어교육과 맞물리는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1.0 문화의 존재 양태-문화적 문식성의 범주

1.1 문화의 통시적 양태 : 언어 문화의 규범성을 교육적으로 중시

1.2 문화의 공시적 양태 : 학생들의 현재적 삶에 개입되어 있는
문화 현상을 중시

2.0 문화 인지의 효과-문식성의 작용 효과

2.1 기능적 소통 작용(효과) : 일상적 의사소통 기술 발달

2.2 비판적 소통 효과 : 일상적 소통 속에 은폐된 진정성을 비
판할 수 있는 능력 개발

3.0 문식성의 활용 차원-문식성의 교육과정 내용화

3.1 지식 차원 활용 : 언어 문화적 사실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내용화 하기

3.2 전략 차원 활용 : 문학을 통하여 일반 교육의 목표들을 달
성하기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 문식성의 특성(세 범주의 여섯 가지 하위 특성)들은 상호성을 가지고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재개념화 될 수 있다.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재개념화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또는 실천적 과제들이 놓여 있다.

1. 성공적 재개념화를 위해서는 생성력 있는 국어교육 이론이 개발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문화 이론이 가지는 자장보다 더 강력한 국어교육 이론의 자장이 있어야 한다.
2. 진정한 의사소통과 문화비판의 관계에 대한 국어교육적 탐구가 있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소통 또한 언어적 소통의 한 양상이다. 이를 토대로 재개념화를 추구해야 한다.
3. 일반 교육과 국어교육의 상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도 교육의 보편 원리를 생성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이 생산적으로 재개

념화하기 위한 중요한 토양이 된다. 통념으로 승인된 어떤 국어교육의 경계역을 발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안목과 인식이 필요하다. 국어교육적 재개념화란 국어교육의 새로운 구획 만들기와 동의어이다.

【핵심어】 문식성, 재개념화, 문화적 문식성, 국어교육

〈Abstract〉

**A Study on Reconceptualization of the
Cultural Literacy in context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Park, In-gee

A general idea of literacy has constantly enlarg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communication. The cultural literacy is the representative aspect in reference to the change of literacy concept.

Today the concept of cultural literacy is generally accepted as the fundamental cultural knowledge(skill) that have the individual to participate sociobecause -cultural communication. Some classicists have emphasized that the cultural literacy should attach importance to the education to have students understand classic text of its traditional cultural value.

According to phenomen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cultural literacy is explained as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rationality of usual thing's value, keeping sensibility to symbol in communication activity, and adjusting to changing environment of media. In short, the concept of cultural literacy is more compound and highly fluid concept related to communication ability than that of traditional literacy.

In order to reconceptualize cultural literacy from the angle of language education,

one should have the view-point that take hold of the

cultural phenomena in context with educational phenomena. And it (reconceptualization) requires to have significance process that the content and phenomena of culture is considered in context with linguistic communication. To establish desirable correspondence with cultural literacy and language education, we recognize that cultural literacy is necessary for a man of today to progress his communicative life which is strongly related language education.

It is possible to categorize the significant feature of cultural literacy to consider meaningfully in language education.

- 1.0 The aspect of being of culture : the categories of cultural literacy
 - 1.1 The diachronic aspect of being of culture : for normative language culture
 - 1.2 The synchronic aspect of being of culture : for cultural phenomena at present
- 2.0 The effectiveness of culture cognition : for Working of literacy
 - 2.1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communication skills : for daily communication skills
 - 2.2 The effectiveness of critical communication skills : for ability of awareness of reality
- 3.0 The utility of cultural literacy : for content organization of curriculum
 - 3.1 The utility of cultural literacy in level of knowledge : for content organization of curriculum with the fact of language/culture
 - 3.2 The utility of cultural literacy in level of strategy : for achieving educational objectives through literature

(cultur)

These three(or six) features of cultural literacy keep interaction, through which the reconceptualization in context with language education is possible.

There are some tasks in theory and practice to reconceptualize cultural literacy in context with language education.

1. Developing and establishing the powerful theory of language education to produce reconceptualizing the cultural literacy in context with language education
2. Studying relations between sincere communication and culture criticism in context with language education for the successful reconceptualization
3. Strengthening mutuality of general education and language education for the successful reconceptualization in terms of educational productivity and its vividness.

【key words】 literacy, reconceptualization, cultural literacy, korean language education